

보도 일시	2021. 11. 10.(수) 11:30	배포 일시	2021. 11. 09.(화) 10:00
담당 부서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	책임자	과장 최진 (044-203-2641)
		담당자	사무관 김아라 (044-203-2649)

[가칭] 이견희 기증관 건립부지로 송현동 결정

-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기증품 활용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선정
- 11. 10. 문체부, 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 '기증관을 대표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고(故) 이견희 회장 유족 측의 기증으로 국가가 소장하게 된 문화재와 미술품의 효과적인 보존, 전시, 활용 등을 위한 '(가칭) 이견희 기증관'의 건립부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선정하고,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와 2021년 11월 10일(수),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가칭)이견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가칭) 이견희 기증관 건립부지는 입지분석을 토대로 송현동으로 결정

문체부는 지난 7월에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 활용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을 추진해 (가칭) 이견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인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에 대한 입지를 비교, 분석하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 활용 위원회(위원장 김영나, 이하 기증품 활용위원회)'에서 송현동을 최종 건립 부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용산 부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송현동 부지는 국립현대미술관 인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과 협력하기 쉽고 접근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부지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연 3백만여 명과 연계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고 향후 용산공원 조성 시 국가대표 박물관 단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송현동 부지의 경우에는 정치, 경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도보

10분 거리 내 20여 개의 박물관·미술관이 밀집해 있고,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등 문화·관광 기반시설이 발달해 국내외 방문객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증관 인근 부지가 도심의 녹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고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어 조망이 우수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반면,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에서 부지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문체부가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용산 부지는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20%)과 용적률(50%)이 낮아 가용 건축면적이 작고,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진입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점이 취약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입지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 설문을 통한 계층화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도 진행했다. ‘장소성’, ‘문화예술 연계성’, ‘접근성’, ‘부지 활용성’, ‘경관 및 조망성’ 등 6개 기준에 따라 평가했고, 그 결과 송현동이 더 적절한 부지로 평가받았다.

* 계층화 분석(AHP):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의 하나로써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이 다수이고 복잡한 경우 이를 계층화해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각 요인에 대해 일대일 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

‘기증품 활용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송현동을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부지로 최종 심의·의결하면서, 향후 건립될 ‘(가칭) 이건희 기증관’이 기증품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중심이자, 인근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동서양, 시대, 분야의 경계를 넘어선 창의적 융·복합 콘텐츠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로 기증관을 대표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

문체부는 ‘(가칭)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증관을 대한민국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송현동 부지 37,141㎡ 중 9,787㎡를 기증관 부지로 하고, 서울시는 부지취득 절차를, 문체부는 교환 대상 국유재산 확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상호 협의하에 부지를 교환한다. 또한, 기증관 부지와 인근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별도의 준비단을 구성해 기증관 건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축 연면적 30,000㎡ 규모로, 독립적으로 기증품을 소장·전시하면서 동서양, 시대,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문화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건립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부터 국제설계 공모절차를 추진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 '27년에 완공·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칭) 이건희 기증관’이라는 명칭도 향후 많은 의견을 수렴해 더욱 확장성을 가진 이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연구용역 후보지 분석 결과와 기증품 활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부지가 선정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기증관의 건립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건립부지 선정과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은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여정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성공적으로 기증관을 건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그간 지역에서도 기증관 건립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준 만큼,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문화시설 거점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과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박물관·미술관 협력체계(네트워크 뮤지엄)’를 구축하는 한편, 권역별 순회전시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향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현동은 경복궁, 광화문 광장, 서울공예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북촌·인사동이 인접해 있어 기증관 건립의 최적지”라며, “기증관 건립을 통해 광화문 일대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지대(벨트)로 발전하고, 서울이 세계 5대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건립 후보지 입지분석 결과



송현동 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용산 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특징	항목	특징	항목
조선 시대 이후 정치, 경제, 문화·예술의 중심지이며 관련 인프라 발달	장소성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용산공원과 인접해 있으나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장소성
19.91%		6.44%	
국립현대미술관, 경복궁, 인사동 등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 활동 가능	연계성	국립중앙박물관 및 향후 용산공원 조성과 연계한 국가대표 박물관 단지로 발전 가능	연계성
18.11%		6.48%	
종로구 내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한 도보,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진입로 추가 매입 필요	접근성
16.62%		5.63%	
대지면적 : 37,141.6㎡ 중 9,787㎡ 문화시설로 결정 시 건폐율 60%, 용적률 150%	부지 활용성	대지면적 : 295,551㎡ 건폐율 20%, 용적률 50%로 가용 건축면적 협소	부지 활용성
6.56%		2.36%	
인근 부지가 도심 공원으로 조성예정이며,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음	경관 및 조망성	인근이 아파트와 철길로 둘러싸여 있고, 건립위치가 국립중앙박물관 동측 끝에 치우침	경관 및 조망성
5.67%		1.93%	
국내외 방문객 유입 효과가 큼 서울시 부지 취득 절차 진행 중으로 부지확보를 위해 다소 시간 소요	기타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의 유입 효과 있음 홍수위로 인한 수장고 확보 문제 있음	기타
6.05%		4.23%	
72.93%	중요도 결과	27.07%	

※ 위 표는 입지분석과 AHP분석을 종합한 것이며, 가중치는 장소성 > 연계성 > 접근성 > 부지 활용성 > 경관 및 조망성 > 기타 순임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